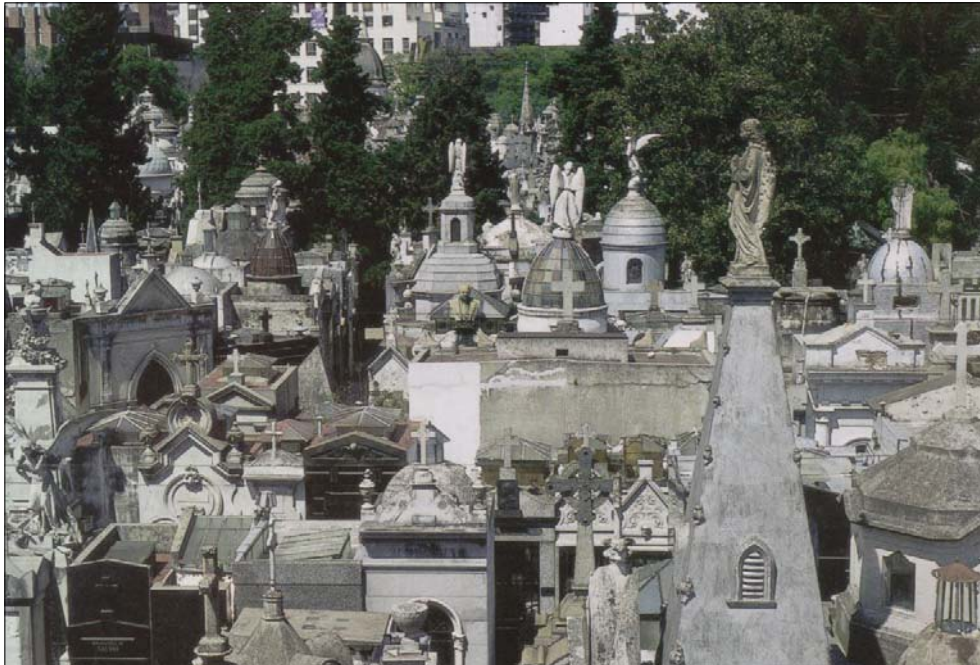


## 레콜레타 공동묘지의 매력적인 시신들

우고 칼리가리스 · 라우라 리나레스



레콜레타 묘지

부에노스아이레스 최고의 특권층이 모이는 동네인 레콜레타는 네 개의 블록과 6,000기의 무덤으로 이루어졌다. 그곳 주민은 영면을 취하고 있다. 아무도 이들을 쫓아낼 수 없다. 왜냐하면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가신 이웃이 와서 고요함을 깨트릴 위험도 없다.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 하지만 이곳에 들어온 이는 나가고 싶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 죽음이

라는 현상을, 입천장이 시커멓게 변해버린 시체를 위해 준비된 맛있는 요리인양 경험하기 때문이다. 묘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묘지 중 하나인 레콜레타에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리 나쁜 일이 아니다.

### 블록들

아메나바르가 과장한 것이 아니었다. 개인마차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콘스티투스온 역까지 걸어서 갈 작정이었나? 아메나바르에게 그 길은 기차가 떠나버린 뒤 도착할 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영웅적인 길이였다. ‘그 용기는 어디로 갔나? 왜 나는 최악을 생각하나?’ 아메나바르가 혼잣말을 했다. ‘약간의 운이 따라준다면 나를 콘스티투스온으로 데려다 줄 뭔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마차나 빌린 차가 나타나지 않을까 내내 두리번거리며 나는 센트랄 아르헨티노의 벽을 따라 세리토 가(街)를 향해 갔다. ‘이 길로 가면 다리가 아프기 전에 먼저 목이 빠근해지겠군.’ 아메나바르는 세리토 가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언덕을 오른 뒤 남쪽 동네로 계속 갔다. ‘엘 바호와 카야오에서 콘스티투스온까지 가려면 대략 40개의 블록을 지나야 해’라고 생각했다. ‘짐 가방을 두고 가는 게 더 낫겠어.’ 읽고 있던 『도시와 산맥들』도 짐 이랑 같이 두고 가는 건 내키지 않았다. 짐 가방을 집에 두고 간다면 로드리게스 페냐 가에 있는 집까지 여섯 블록을 되돌아가야만 하고, 짐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간다면 세리토까지 여섯 블록을 가고, 또다시 콘스티투스온 역까지 남은 블록을 걸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지금 집으로 가서 선풍기 앞에 기대 앉아 『도시와 산맥들』을 읽고 여행은 내일로 미루는 거지.’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내일 기차가 운행될 거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나? 어떤 일이 있어도 게을러지는 건 안 된다. 나를 압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도시는 텅 비어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악몽 속에서 본 것처럼 위협적이었다.

—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 「누메논」 중에서

그곳 거주자 중에는 대단한 성(姓)을 지닌 사람도 있다. 가문 이름만 대도 알 만한 사람, 귀족, 애국자, 영웅도 있지만 운동선수, 영화감독, 시인도 있다. 이보다는 평범한 사람도 있는데, 이마에 흘린 땀의 대가로 그

곳에 한 자리를 얻은 보통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카탈리나 도간은 베르나베 사엔스 가문의 노예였는데 주인 가족 옆에 묻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지낼 것이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카탈리나 도간, 하녀라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정직함과 신실함의 표본이었다.’

에바 페론이 레콜레타에 묻혀있다는 사실은 이 묘지가 계층 이동을 반영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층민의 대변자이던 에바 페론은



에바 페론의 묘

그녀가 죽기를 바라던 많은 사람 옆에 잠들어 있다. 에바처럼 그들 역시 죽었기 때문에 오늘날은 입을 다문 채 에바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다.

레콜레타에 납골당 하나를 얻으려던 프롤레타리아들의 투쟁에서 위대한 챔피언격인 다비드 아예노의 경우는 또 다르다. 그는 레콜레타의 관리인이었는데, 그곳을 사랑하고 너무 숭배한 나머지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 기예르모 브라운 제독, 『마르틴 피에로』의 저자 호세 에르난데스 곁에 묻히겠다는 환상을 키웠다.

그 꿈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러다가 레콜레타 관리 당국에서 일하던 그의 형 후안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리고 복권 당첨금을 나눠받은 다비드는 자신이 묻힐 땅을 살 수 있었다. 그는 제노바의 조각가 카네사에게 빗자루, 물뿌리개, 정성껏 보살피던 납골당의 열쇠꾸러미를 든 자신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 제작을 의뢰했다. 다비드의 마지막 거처, 즉 묘지 윗부분에는 사랑하는 형 후안 아예노의 이름과 콧수염을 기른 형의 반신상을 새기도록 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카네사가 조각칼로 다비드의 대리석 조각상에 다음 구절을 새겨 넣은 것 같다. ‘그는 1881년부터 1910년까지 묘지의 관리인이었다.’ 그 해가 바로 1910년이였다. 기가 찰 노릇이지만 다비드는 아직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묘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다비드 아예노의 조각상

다비드는 멋지게 완성된 자신의 조각상을 보자 너무 전율해서 빨리 사용하고 싶어 안달이 났고, 그 조각상의 비석에 마치 선고처럼 새겨져있던 구절을 뒤집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집에서 총을 한 방을 쏘았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을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안이 텅 빈 채로 자기 납골당이 남아가는 것만 지켜보며 죽음이 천천히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기

막힌 상황에서 다비드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이 순수한 사람의 전설에 이끌린 우리 두 사람은 다비드의 납골당을 찾아가 글라디올러스 꽃을 바치고, 그의 조그만 소유지의 사진을 찍는 등 나름의 의식을 치렀다. 우리는 이제는 저세상 사람인 자수성가한 그 사람, 벽감(壁龕)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사람에게 감동에 겨워 경의를 표했다.

다비드 아예노 이야기는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비록 조금만 더 파헤쳐보면(당연히 매우 조심스럽게 파헤쳐야 한다) 몇몇 의심스런 점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빗자루와 물뿌리개를 든 다비드 아예노의 조각상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그가 열쇠꾸러미를 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확성기와 죽은 자의 말을 잡아낼 수 있는 특수 녹음기를 들고 묘지를 돌아다니는 강신술사 무리가 다비드 아예노의 증언을 녹음해 인터넷에 올렸다. ‘유사과학 연구와 조사를 위한 스페인 센터’ 웹사이트의 심리음성 파트에 올라온 파일을 들어보면 ‘단지 나 뿐이야’라고 말한다. ‘아르헨티

나 파라노르말’이라는 단체의 조사원들은 바닥에 던져진 열쇠 몇 개를 보았고, 그 열쇠를 집어 들자 한 사람이 나타나 화를 내며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한다. 조사원들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사진 한 장을 찍었지만 필름을 인화하자 사진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 남자는 유령, 다비드 아예노의 유령이었다.

### 유령

엔리케 산토스 디세폴로가 감독하고 페페 아리아스와 솔리 모레노가 주연한 영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유령들>(Fantasmas de Buenos Aires, 1942)은 ‘흰 옷 입은 부인’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다룬다. 그녀는 죽은 뒤에 비센테 로페스 가(街)와 아수쿠에나가 가(街) 모퉁이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신사들을 유혹하다가, 자정이 되면 무덤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이름은 루스 마리아 가르시아 베요소였으며, 희곡작가 엔리케 가르시아 베요소의 딸이었다. 배우 아르투로 가르시아 부르는 모든 친구에게 그녀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루스 마리아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으며, 날씨가 추워서 옷도리를 빌려줬는데 키스할 심산으로 그녀를 따라 레콜레타로 가자 그녀가 곧 연기처럼 사라졌고, 루스 마리아의 무덤 위에 옷도리만 덜렁 남았다는 것이다. 이후 친구들은 아주 오랫동안 아르투로가 말한 그 모퉁이에서 여인들 얼굴을 쳐다보는 것을 피했고, 더 이상 아르투로를 찾아가지 않았다.

레콜레타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다른 두 묘지는 파리에 있는 페르 라세즈 묘지와 제노바에 있는 스타글리에노 묘지다. 1860년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스타글리에노 묘지를 찾았을 때, 그는 그곳의 기념비적인 특징에 놀랐다. 연도상으로 레콜레타는 이 두 묘지가 만들어진 시기 사이에 만들어졌다. 페르 라세즈 묘지는 1804년 5월 21일에, 스타글리에노는 1851년 1월 1일 문을 열었다. 레콜레타는 1822년에 문을 열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최초의 묘지였다. 처음에는 ‘노르테 묘지’라고 불렸으며, 전형적인 ‘캄포 산토’였다.<sup>1)</sup> 가톨릭 신자만 묻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

1) 가톨릭 신자들이 묻히는 묘지.

1863년 바르톨로메 미트레 대통령이 프리메이슨이었던 블라스 아구에로의 안장을 허락하자 그곳은 더 이상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곳이 아니게 되었다. 아네이로스 대주교는 대통령의 조치에 화가 나서 교황이 그 묘지에 내린 축복을 취소해버렸다. 그런데 오늘날 레콜레타에는 바르톨로메 미트레 대통령, 프리메이슨 멤버 아구에로, 아네이로스 대주교가 벽을 사이에 두고 잠들어 있다.



가톨릭 양식을 따르지 않은 납골당

### 마녀들

평범한 어느 날 거리로 나와 발길 닿는 데로 걷지.  
 하지만 어느 날은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이 되어버리지.  
 묘지 뒤편으로  
 공원을 가로 질러 나는 한 바에 도착하네.  
 그곳엔 포도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남자들밖에 없지만  
 공기에는 특별한 것이 느껴져.  
 한 겨울이지만 종종 그렇듯  
 뜨거운 열기가 온 도시를 침범하지.  
 마녀들과 아스팔트의 도시!  
 뱃길이 없는 항구!  
 꼭 항해를 해야 한다면  
 오늘 나는 바에 앉아서  
 항해를 할 것이네.

— 아르헨티나 록그룹 라 포르투아리아(La Portuaria)의 곡 〈로드니 가의 바〉 (El calle del bar Rodney)의 가사. 로드니 가(街)는 차카리타 묘지 근처에 있다.

저승에서의 회합은 사실상 묘지 전역에 걸쳐 일어났다. 마누엘 도레고 대령이 후안 라바예 장군을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불편한 점을 나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이 두 사람은 좋은 이웃이 되었으며,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와 파쿤도 키로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1)</sup> 이미 언급했듯이, 레콜레타에는 에바 페론도 있지만 남편 후안 페론을 물러나게 한 에두아르도 로나르디와 페드로 에우헤니오 아람부루 역시 그곳에 묻혀 있다.

급진당의 레안드로 알렘, 이폴리토 이리고엔, 아르투로 움베르토 일리아 역시 구체제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피게로아 알코르타, 카를로스 펠레그리니 옆에 묻혀있다. 살아 있을 때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도밍고 파우스티노 사르미엔토와 후안 바우티스타 알베르디 같은 사람도 있고, 작가 아돌포 비오이 카사레스처럼 세련된 아르헨티나인이 팜파의 야생 황소라고 부르던 권투선수 루이스 앙헬 피르포처럼 거친 사람들과 섞여 있기도 하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만 없다. 그는 제네바에 있는 자신의 소박한 무덤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마치 기억처럼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 자기 죽음의 관조자이다”라는 시적인 축복을 사람들에게 내리고 있다.

1870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강타한 끔직한 황열병은 레콜레타 묘지를 미어터지게 만들었다. 전염 위험 때문에 묘지는 폐쇄되고, 차카리타와 플로레스라는 새로운 묘지 2개가 만들어졌다. 1881년 레콜레타 복원이라는 큰 업적을 남긴 이들은 시장 토르쿠아토 데 알베아르와 이탈리아 건축가 후안 안토니오 부스치아초였다. 부스치아초는 세 개의 철문, 다양한 메달 장식과 알레고리적인 원형부조(메다용)가 있는 두 개의 열로 이뤄진 회랑을 입구에 만들어 새로운 위계를 정립했다. 거대한 장식물과 천사들의 크기로 인해 레콜레타에 있는 82개의 기념물은 ‘국가의 역사적 무덤’이라는 매우 독특한 이름을 수여받았다.

레콜레타라는 이름은 근처의 교회에서 유래했다. 1732년에 건립된 아

1)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Juan Manuel de Rosas, 1793~1877)는 19세기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이며, 정적인 파쿤도 키로가(Facundo Quiroga, 1788~1835)를 암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레콜레타 묘지 주변이 완전히 도시화되면서 묘지 너머로 상업광고도 흔히 볼 수 있다

주 오래된 바실리카로 ‘레콜레토’<sup>1)</sup> 사제들이 필라르 성모를 모시고 90년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다. 교회 주변은 도시화되어 ‘라 레콜레타’라고 불리며 묘지를 에워싸게 되었다. 레스토랑, 박물관, 영화관, 수공예품 노점이 많은 곳이다. 이 공간은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두 번째로 창건되었을 때부터<sup>2)</sup> ‘옴부나무 별장’으로 불렸다. 1716년에 그곳 소유주 가운데 한 명이던 후안 데 나르보나가 땅을 기증해 교회를 짓도록 했고, 자신이 신실하게 믿던 스페인 사라고사의 필

라르 성모에게 바친다는 조건을 달았다. 1732년 10월 12일 교회는 처음으로 문을 열었고, 적절한 보수를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희고 매우 날렵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과거에는 죽은 자를 교회의 뒤뜰에 묻곤 했는데, 교회 건물의 그늘이 닿던 곳까지만 묘지로 사용했다. 원래 레콜레토 사제들이 묘지를 운영해 왔으나 1821년 총독 마르틴 로드리게스와 정부 관료 베르나르디노 리바다비아가 종교 개혁을 추진하며 이들을 쫓아내고 땅을 몰수해 공공묘지로 바꾼 것이다. 1834년부터 교회는 결인과 노인의 수용소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이 모든 것, 즉 수도원과 거기에 묻힌 가톨릭 신자, 무슬림, 무신론자가 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묘지에 묻힐 수 있을 때까지 엄청난 저항을 경험한 프리메이슨은 결국 입구 정문에 보이는 상징들, 즉

1) 금욕, 절제, 은둔을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는 수도원이나 사제.

2) 대서양으로 향하는 항구를 건설하기 위해 스페인 왕실에서 후안 데 가라이에게 위임, 1580년 6월 11일 ‘신성한 삼위일체 도시와 산타마리아 델 부엔 아이레’(La ciudad de Santísima Trinidad y Puerto de Santa María del Buen Ayre)라는 이름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창건되었다.



기계축, 가위, 왕관, 구(球), 날개, 일벌, 꼬리를 물고 있는 뱀, 아래로 불길이 향하는 햇불, 부엉이, 물시계를 새겨 넣을 수 있었다. 레콜레타 묘지 안에 난 작은 길에서는 화해와 조화의 기운이 감돈다.

### 관광객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항상 개방적인 도시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市) 거주민은 ‘포르테뇨’라고<sup>1)</sup> 부르는데, 그 이름은 이 도시가 항구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의 거주자는 ‘보나에렌세’라고 불린다. 포르테뇨는 마음이 따스하고 친절하다. 종종 관광객을 집으로 초대해 점심이나 저녁식사로 현지 음식을 대접한다. 대표적인 차는 ‘마테’이다. 역시 마테라고 불리는 용기에 마테 차를 넣어 뜨거운 물을 부어 우려낸다. 설탕을 넣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설탕 없는 마테, 즉 슝스름한 차를 선호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관광사이트에서

하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이는 정치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것, 즉 남편과 아내 사이의 증오에서 나왔다. 산후안 출신으로 두각을 나타낸 법학자이자 정치가이던 살바도르 마리아 델 카릴(1798~1883)은 어느 날, 아내 티부르시아 도밍게스가 용인하기 힘들 정도로 상점에서 돈을 써대는 것에 지쳐버렸다. 그는 에두르지 않고 아내에게 그 점을 말했고,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이 너무 싫었다. 그는 남편의 말을 너무나 뼈아프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살아서도, 그리고 죽어서는 더더욱 남편과 절대 말을 하지 않으리라고 맹세했다. 티부르시아는 그 맹세를 지켰다. 오늘날 묘지에 있는 아내와 남편의 조각상은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살바도르의 조각상은 서쪽을, 티부르시아의 조각상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살바도르의 시선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티

1) ‘항구 사람’이라는 뜻.



레콜레타 묘지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이곳에 납골당을 마련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20세기 초에 이미 사진처럼 좁은 땅에 납골당을 높이 세우는 가문이 많아졌다.

부르시아는 시선을 북쪽에 고정시킨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입은 돌로 되어 있다.

레콜레타의 납골당 소유주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가 묘지를 돌아다닐 때, 책임자인 듯한 한 여성이 묘지들은 영구적이며, 방치된 묘지들이라고 해도 그 안에 유해가 있고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손댈 권리는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가

죽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팔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짓은 진짜 ‘잔혹한’ 사람이나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잔혹한’이라는 단어를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듯한 목소리로 발음했다. 아마 그 여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쩌면 그녀가 죽은 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노동조합 대표같은 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는데,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의 동의어는 아니기 때문이다. 납골당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구글에서 ‘레콜레타 납골당’을 검색하면 ‘테레마테닷컴’<sup>1)</sup>이라는 사이트에서 정보가 뜬다.

찾은 품목 수: 1개

가격: 미화 2만 달러

품목 타입: 중고

용량: 관 8개 수용가능

영구 소유. 중앙 예수상과 가까운 좋은 위치.

3필지, 탄덜 지방의 회색 돌로 만든 정면과 문. 이중 계단이 있는 예배당. 이탈리아 카라라 산(産) 대리석의 층과 계단. 금속 부분은 청동. 스테인드글라스. 세련된 양식(式樣)의 문. 관리상태 양호. 소유권 문서 완벽.

이런 성격의 재산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드뭅니다. 역사적·건축적 측면에서 세대에서 단 하나뿐이고 경이로움 그 자체라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 묘지의 납골당은 훌륭한 투자가치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정승희 옮김]

---

우고 칼리가리스(Hugo Caligaris)는 아르헨티나 《나시오》(Nación)의 기자로 문화 증보 판 ADN을 담당하고 있으며, 라우라 리나레스(Laura Linares)는 아르헨티나의 여러 잡지와 일간지의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옮긴이 정승희는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외래교수이다.

---

1) ‘테 레마테’는 우리 말로 ‘떨이’라는 뜻.